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 박 병 만 우
편집인: 박 고 병 만 우
집행인: 박 고 병 만 우
주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주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주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주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1996년 4월 1일(월) 제662호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주간)
1958년 3월 27일 제 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지난 27일(금) 열린 부당한 등록금 인상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고내 집회후 법인 사무실 앞에서 제단 전입금 확충을 위해 청의 방문을 한 뒤, 광문을 집수시켰다. 이날 집회 이후 학생들은 중문에서 열린 서총련 결기대회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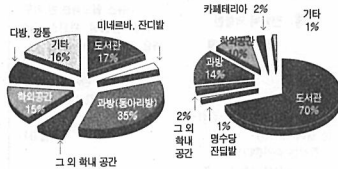
강의 없는 시간에 주로 가는 곳

서울, 과방·동아리방 35%

용인, 도서관 70%

지난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 본보는 서울캠퍼스 152명, 용인캠퍼스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5개의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강의없는 시간에 무얼 하는지, 또 학내 여러 시설을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아래 그래프는 학생들이

강의 없는 시간에 주로 어디를 가는가?



전국 휩쓰는 등투 열기

서울, 1만3천 공동요구안 전달
용인, 청년선언문으로 총의 모아

등록금 투쟁의 열기가 한국대학 학생연맹(한총련) 자원의 총력을 중심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지난 27일(수) 성남에서 경기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경기동부총련) 총결기를 결성했고, 서울캠퍼스는 지난 29일(금)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총결기로 투쟁을 열어나가고 있다.

서울

지난 25·26일(화) 동맹휴업 한 번을 끝낸 총투표 결과 재단법인 7350명 중 3157명이 투표해 42.9%의 투표율로 과반수가 못넘어 부결됐다. 이와관련 서울캠퍼스 법과대 학생회장 황인복(법학 4)은 "동맹휴업은 비록 성사되지 않

았지만 투표에 참가한 43%의 학생들을 생각하며 총결기로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내자"라며 학생들을 독려했고 정책과학대, 사범대 등은 단대차원의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또한, 지난 27일(수) 열린 결의대회에서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군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재단전입금 확충과 교육재정확보 없는 재단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등록금투쟁방향을 밝

힌 후 집회 참가자 전원이 본관 총장실과 재단사무실 앞에서 평화 농성을 가졌다. 상경대 학생회장 김창수(무역 4)군은 비롯한 단대장들은 재단사무과장을 만나 스건 설가계정 140여의 내역을 밝힐것을 시정지시할 전입금 확충 시범인

전입금 부담 등의 재단전입금 확충과 관련해, '이문·왕산 1만 3000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오는 4월(수)까지의 답변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이후 중문에서 서총련 소속 대학생 10여명과 합류해 '재단자금공개촉구 및 등록금인상 투쟁 동맹휴업 결기대회'를 가졌다.

이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연세대 노수석(법학 2)군이 사망하고 본교생 10여명을 비롯한 서총련 소속대학생 900여명이 연행됐다.

용인

지난 27일(수) 제17대총학생회 결기총회를 통해 총결기 투쟁의 결의를 다진 용인캠퍼스 학생 400여명은 지난 15일(금) 전달한 1만

김재정 기자

경찰 과잉진압으로 연세대 노수석군 사망

지난 29일(금) 열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이 참가한 '재단자금공개 촉구 및 등록금 인상지지를 위한 동맹휴업 결기대회'에서 연세대학교 노수석(법학 2)군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

중문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은 경찰이 곤봉과 페퍼포그를 동원한 진압진압을 당하며 산발적으로 흩어졌고 노군은 경찰에 맞고 대명문화사로 4~5명의 학생들과 대피했으나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목격한 대명문화사 주인 최중두씨는 "시위학생이 인쇄소 안으로 들어와 나중 들어온 인쇄소 직원들 받아 내준 있는데 한 학생이 기계열에 쓰러

져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군의 사체를 감한 한 병원은 "은 의상은 발견되지 않으나 흉상과 타박상의 흔적이 있다"라며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큰 화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CT촬영 결과, 목뒤를 곤봉으로 맞아 머리 이상과 흉곽의 구타로 인한 폐의 이상이 나타났다. 이날 대학로와 동국대에서 집회집회를 하던 서총련 소속 대학생 2000여명은 노군 사망소식을 듣고 급히 국립의료원으로 집결하고 참아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수색명령을 발부 받아 국립의료원에 진입하려고해

이를 저지하던 숭실대생을 진압 연행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맹(한민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화 실천기독교문명협의회(민기협)와 함께 '노수석 사인규명와 사체해결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소년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시신 안치 소 부모의 동의하에 공평한 부검 실시 △경향신문 철수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한총련은 30일(토) 연세대에서 집회를 갖고 오는 3일(수) 반미집회를 통해 정부의 폭력진압과 노군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선전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사 령

임

대학 정치자

박수범(서양·프로그래밍2)

전명수(서학·러시아어2)

사회 정치자

김주영(동양·일본어2)

허윤숙(동양·아랍어2)

문화 정치자

김남균(동양·아랍어2)

안재민(서학·독일어2)

윤승호(인문·사회2)

사건 정치자

고영진(정책·신방2)

이상 8명 3월 4일자



시대의 죽음 앞에서

▲또 하나의 죽음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비오는 밤, 혼잡한 중로 거리에서 잠시 술집을 뒤흔들고 있어 쓰러지는 최후탄에, 전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또 하나의 젊음이 우리곁을 떠나고 말았다. 대통령도 약속했던 '교육비 GNP대비 5%확충'을 외치던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이 어린 친구가 무슨 죄가 있겠고 이리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우리는 민주화를 외치다 처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시민, 학생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외쳤다. "군사재판도!" 그리고 그들은 경찰의 군화발에, 곤봉에 쓰러져 갔다. 또한 우리는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문명정부 아래서 죽어간 수많은 열사들도 기억한다. 노조장 이대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 철거민 신현숙, 어용노조에 분개해 분신자살한 김지자 열사를 기억한다. 그리고 독재시절이나 별반 다를바 없는 대가를 받고 있는 도시빈민들을, 경찰의 폭력에 대해없이 내뿜어준 학생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외침소리만 "등록금인상 반대" "교육재정확보"로 바뀌었을뿐 경찰의 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달랐다. 것이 없다.

▲당일 텔레비전 뉴스는 "시위도중 건물로 피신하다 갑자기 쓰러짐"이라는 내용으로 몇초간 보도했다. 뉴스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종'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다. 그러나 그날 밤 PC통신을 켜면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의 진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속속들이 올라오는 정확한 소식들, 그리고 시민 학생들의 분개한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누구나 이 시대의 진실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언론을 장악해 사안을 축소·왜곡하려는 것마저 현정권은 어쩌면 그렇게 5·6공을 닮았을까!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부과해 데모한 것도 아닌 학생들에게 최후탄을 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 신한국에서 노수석, 그의 영전에 고개숙여 애도를 표하며 안전가 국민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하늘에 있을 그에게 전하고 싶다.

고병권

지면 안내

전국대학 바르세우기3면

월드컵공개회8면

월드컵남북공동개회의 취지와 의의를 알아보다

등록금 투쟁을 알아보다

건설 2년째, 최고의 절기로부터 자리매김하기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문화공간에 관한 설문조사6면

완산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간다(7)

독립영화의 독립성7면

'한국 독립영화제'가 동승시대

미테크에서 열렸다 과연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월드컵공개회8면

월드컵남북공동개회의 취지와 의의를 알아보다

등록금 투쟁을 알아보다

건설 2년째, 최고의 절기로부터 자리매김하기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문화공간에 관한 설문조사6면

완산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간다(7)

독립영화의 독립성7면

'한국 독립영화제'가 동승시대

미테크에서 열렸다 과연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월드컵공개회8면

월드컵남북공동개회의 취지와 의의를 알아보다

등록금 투쟁을 알아보다

건설 2년째, 최고의 절기로부터 자리매김하기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문화공간에 관한 설문조사6면

완산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간다(7)

독립영화의 독립성7면

'한국 독립영화제'가 동승시대

미테크에서 열렸다 과연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월드컵공개회8면

월드컵남북공동개회의 취지와 의의를 알아보다

등록금 투쟁을 알아보다

건설 2년째, 최고의 절기로부터 자리매김하기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문화공간에 관한 설문조사6면

완산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간다(7)

독립영화의 독립성7면

'한국 독립영화제'가 동승시대

미테크에서 열렸다 과연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월드컵공개회8면

월드컵남북공동개회의 취지와 의의를 알아보다

등록금 투쟁을 알아보다

건설 2년째, 최고의 절기로부터 자리매김하기위한 길은 멀고 험하다

문화공간에 관한 설문조사6면

완산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간다(7)

독립영화의 독립성7면

'한국 독립영화제'가 동승시대

민족지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

"수석아 / 눈을 떠다오"



한달에 한명씩 죽어가는 문민세상

또 한명의 조국의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이번 일과다에서 반세기로 발전된 이대인 열사 아래 한달에 한명씩 죽어가는 문민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이한열, 강대열 열사 등 곤봉과 방패로 귀중한 청춘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감성상 정권을 신한국 건설, 역사바로세우기의 주역이라 부를 수 있다. 평소 편사가 돼 사회의 부정부조를 실험해왔다고도 노수석 열사.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분을 잊지않고 이 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백만청춘의 분노로 4천만 국민의 심장에 열사의 뜻을 아로 새길 것이다.



폭우속의 폭력(지난 3월 29일 집회 시위장면)

고 노수석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사 설

등투 평가와 과제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 이제 이 구호는 신인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위의 2가지 목표를 위해 지난 2월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3·27총투표와 29·30 등투투표를 제안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월)과 26 (화) 일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는 등투투표에 대한 총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42.87%로 마감돼 안타깝게도 등투투표는 무결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27일 (수)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가한 각과와 단대의 일꾼들은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등투투표 부결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총투표가 실시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정문에서는 27가지 이상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 뿐만 아니라 과단위에 서도 자체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양을 위한 이동학생회를 실시했던 것 역시 예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또 전체 투표에 부결된 상황에서도 정학과학내나 사단대 등은 각각 69.5%와 55.6%라는 투표율을 바탕으로 자체 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총투표 개표과정에서 나온 354명의 반대표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해마다 어떤 시점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3~4%를 밑돌던 반대표가 무려 11.23%나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등투투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 등록금 반대나 교육재정 확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등투투표이라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라는 가슴아픈 충고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9일 (금) 진행된 결기대회에 참석한 500명의 학생들은 등투투표를 하고도 수업에 들어갔던 예전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이제 등투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총투표에 참가했던 3000명 외대의 관심은 계속하고 등투투표이라는 형식은 354인의 반대표를 통해 혁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외대의 등록금 투쟁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바로 세우기

등록금 투쟁으로 대학가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등투투표와 연이은 집회를 우리는 외치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이다.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저급까지 일관성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절절히 느끼고 있는 바이다. 일시정책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정부는 이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육정책을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이 이뤄놓은 현상은 보자. 이미 국민들에 있어 교육정책의 실패를 찾는다는 건 이미 산에 돼 물고기를 찾는 격이 되었고 혼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담판시 되어버렸고, 고졸인상원 등록금으로 자살하는 학생마저 생겼다.

교육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백년지대계이다. 이 상태라면 나라의 운명이 밝아질 수 없다. 특히 현 시기의 대학은 교육시장경쟁을 앞두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공유에서 시작해 이런 대학의 자리매김이 다시 한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키워 내야 할 곳으로 굳건히 다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재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큰 전제는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다. 정부는 GNP대비 5%수준으로 교육예산을 높이고 대학간의 차등 지원이 아닌 합리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담배·유·주류에 붙여 받는 이중과세로써가 아니라, 지나치게 예산을 짜먹는 방위비를 삭감하고 교육재정으로 돌린다면 그 곳에서 확보되는 예산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재단도 수혜자 부담론을 내세우며 등록금이 날개를 달 것이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위치를 높여 자각하고 법정전입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바로 세우기는 교육 바로 세우기이며 교육 바로 세우기는 교육재정 확보에서 시작된다. GNP대비 5%수준으로 확보된 재정은 대학의 인재 양성은 목표에 가장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백년 양을 내다 본 크나큰 전망이 세워져야 할 시기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담담히 주장하는 외대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루우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등투, 경제투쟁을 넘어서야

지난 22일 새벽 1시 40분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에 경연과 95학번 원광식(21)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학생들이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원군의 죽음에 대해 친구 몇몇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해 볼때 등록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괴로웠다는 점과 가장형편이 몹시 어려웠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등록금으로 인한 비관자살의 가능성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죽어가는 말이 없고 이를 접한 이들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학측은 명확한 사인규명을 하

기보다는 덮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찰과 공조하여 단속비판자살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 다.

지난해 12월에도 송파구 일신여상학 육교아래에서는 경찰과 92년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장현구(89학번)군이 짧은 청춘을 마감하는 분신을 강행, 10여일간의 사투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경찰대학교 및 정부장은 장신이상으로 인한 극한행동에서 비롯된 자살로 치부해버렸다.

학원가는 불어난 등록금과 관련한 여러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온다 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투쟁들은 단순히 등록금 인상을 얼마나 저지하는가에만 성과를 두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은 너무도 명확했던 것이다.

이제 등록금투쟁은 여기서 그 맥을 끊지 않는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정권의 기만적인 대학 감축기치를 보아내고 대학사회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시해야 한다. 이러

명수당

봄의 단상

새 봄이다. 겨우내 얼었던 생명들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보편 우주만물의 생존진에서 따라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나가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인간들의 경우도 자연 속에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민한 감성을 가진 탓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 또 한 인간이다.

독물은 함께 쉼터 죽이면서 열의를 탄식한다.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잔이 들면 아마도 꿈을 꾸겠지.” 그러나 죽음이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불리적으로 보면 실망의 고통과 슬픔이 밟고 정신활동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 그러나 “꿈을 꾸리라”는 별들의 탄식은 죽음은 목숨에 둔 인간의 고뇌에 한 두려움을 미화한 표현일 뿐이다.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 아니고 무로 진입하는 것이라곤 말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한다. 옛날에는 그래서 빛을 얻어서라도 부모의 환갑 잔치상을 푸짐하게 차려드렸고 전집 또한 새로 태어나는 기쁨으로 여겼다. 70세를 회수(舊壽)라 했고, 77세를 회수(舊壽), 88세를 미수(米壽)라 했고, 99세를 백수(百壽)라 하여 기념했다. 77세 회수의 회(舊)자의 초사체가 七十七의 세 글자를 모아놓은 모양이어서, 쌀 미자는 이리저리 굴리고 돌려도 같은 글자가 되는 까닭에, 백세보다 한 살이 적은 백수의 흰 벼지는 일찍 백자보다 한 획이 적어서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 선인들의 기지가 놀란다. 모두가 오래

살아서 대탈환을 호칭들이다. 중국사에서도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평생토록 공부를 하였으나 번번히 과거시험에 낙방한 무명의 선비들에게도 70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세공생이라는 후한 벼슬을 내려 외관을 걸어온 노학자에 대한 존중한 대우를 하였다. 그 당시 “세월에 공헌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거주지에 지방관리들의 총괄한 자문 역할을 하 였다고 한다.

내세우기기가 조금은 주저스러운 면요(免)라는 나이가 있다. 나이 오십을 지칭하는 면요는 ‘아쉬운 대로 산 나이’이다. 그러므로 뒤돌아 보아 바라보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얼마 남지않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새로운 맡겨줄 거둬들여 다짐하는 나이의 생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면요의 나이는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인간의 생명은 시간적으로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 그 제한된 시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만큼 값지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면요에 뒤 돌아 보아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있던 시간은 역시 대학시절이었다. 객관적으로 물질이 한창된 시기였으나 자아를 가지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양 승 윤

(마인어과 교수)

특 Xr 사 진



폭주기관차 출발!

신방과(보도사진부)

한 움직임을 경제투쟁이 아닌 사상투쟁으로의 전이를 부르고 있다.

4월 11일 총선에서 민주적인 인사를 선출토록 청년학생들이 조직화하는 방안도 담당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집단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내에 잔존하는 비민주적인 학사행정의 개정 및 재단을 건립할 수 있는 실용성있는 제도창출 마련도 교수·학생·직원 등 학생의 3주체가 공히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영환(문학·이과 4, 언론학회 부회장)

등록금 투쟁 함께 일어선다

지난 25·26일 이틀간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촌천 차원의 동맹투쟁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었다. 또한 29·30일에는 그 총투표의 기세를 몰아 서촌천 동맹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의 실패 없는 춘투, 즉 등록금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학생회의의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대 모든 학생들과 발전들을 함께 하자는 큰 의의를 가진 투표였다. 그러나 막상 26일 발표된 총투표율은 기대하지 못 미치는 43%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20일의 투쟁전포식도, 신방과 95학번 조순호 학생의 구속도, 우리가 왜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해야 하는지에 상세하게 풀이한 ‘희망찬길’이란 유인물과 매일의 페인트그래피를 마르기가 무섭게 써서 붙이던 플래카드, 대자보 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총투표 결과였다.

15.5% 너무나도 터무니 없게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도, 그 많은 돈을 내고서도 움직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원망이 내 주변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생각과 함께 다가왔다. 너무 처음부터 기대를 많이 했을지도 모른다. 동맹투쟁을 성사시키고 총결기를 통해 우리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는 정부와 재단을 고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이 지쳐있는 신·후배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맹투쟁이 총투표 결과에 의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등록금 투쟁의 가일한 열정을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이젠 ‘처음처럼’이란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는 외대인 모두가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투쟁에 함께 펼쳐 일어났으면 한다.

김지현(동양·일본어 2)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95정적원-

MBC의 자주와 투쟁에 전적으로 찬사를 보내며 승리하는 날까지 지화하라!!



그때가 되면 남자-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평범아- 그 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와닿게 가는 900-화이팅! 이후 MBC 시청률 내게 맡겨라 -TV종류아- 끝까지 힘내세요 -96 봄이와 이세-

주제: 권력에 저항한 MBC노조에게 지지 발언...

현정권에 아부하는 강성구

는 물러가라!! 진실은 승리한다!! -학생 운동 참가 후--

강성구 & 03 조성혜!!

-조성혜- 한국방송총회를 뒤엎어 버릴시다

-뉴스 협회와는 한 학우- 한민 방송을 완전히 끊어 봐요. 어떻게 되나 보게

-JPI- 땀방울을 반대하는 MBC

노조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십시오

-법 91-

세계의 동부, 창조의 동부

동부와 함께 세계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건설, 제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금융, 보험과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까지- 끝없는 도전과 한 발 앞선 혁신으로 창조적 진보의 역사를 일궈 온 동부가 당신의 21세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 동부제강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동부Engineering 동부화학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금고 동부창투 동부주책합부금융 동부경제연구소

동부그룹

제3차 전학대회 토론내용 요약 및 평가

외대인의 대변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통

대의원들의 책임의식으로 내실속에 안착돼야



학생회 학회기 사업방향을 가능
할 서울캠퍼스 제3차 전체학생대
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27일
(수) 대강당에서 제3차 대의원 207
명중 117명의 참여로 개최됐다. △
방중사업보고 △회계개정안 통과
△총노선 토론 △학원자주투표
토론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고 상
반기 일정공유와 특별결의문을 제

정한 후 막을 내렸다.

회계개정안

지난 1차 대회때 개정된 학생회
칙중 동아리연합회와 확대운영위
원회를 별도의 장으로 구별해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했고, 부회
에 상경대·정책학과대의 학부제
모집과 관련해 '10년 대표자는

계열별 20인으로 대신한다'는 단기
별첨안을 첨가했다.

총노선 토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제
여여간을 넓혀야 한다' 등의 줄
한외의 학원자주투표운동의 원칙과
사업계획을 상경대 학생회장 김광
수(무예 4군)이 발표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전 회의의 모습과는 달리 학생회
일꾼들의 고민지점과 일치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영자신문사 편집
장 이승환(서화·영어 3군)은 사
업계획상에 "이론과 왕년의 학자
연대투쟁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라며 중금중을 던졌다. 또한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인준받은 외
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박
대영(법·법학 4군)은 "주변에 버
려진 쓰레기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관점에
서서 학자를 편취하 한다"라며 대
중적 관심을 일깨워 전지할 것
을 당부했다.

내실속에 안착돼야

건설 2차제, 학생회고의결기구
로서의 자리매김에 도전한 제3차
전학대회는 6시간30분 외대인의 의견
을 대변한다는 그 취지를 무색케
하기 충분했다. 대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논의의 부재로 '대원은

몇분으로 제한한다'라는 작은 시
행세칙에 대한 공방안이 오갔을
뿐 전정 고민해야 할 각 단위의
실현과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
되지 못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 지체된 7시에 시작한 전학대회
는 10시를 넘긴 이후엔 대의원들
이 절반이상 빠져나가 회의가 속
개되지 못해 30여분을 지체해 상
반기 일정공유와 특별결의문을 제
택할 즈음엔 새벽 1시를 넘어갔
다.

△부담한 등록금 인상지지와 교
육재정확보를 위한 일반 상한인 요
구안 등 △김광수 학생회장의 71만여원
교육장려금 분배와 학원자주투
표 △신진·반비 투쟁과 4·11총
선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제
3차 전학대회는 적지않은 골짜기 지
리를 지닌 60명의 대의원과 제4
차 전학대회는 비로소 개막한다
는 취지를 남기고 폐회했다.

김정경 기자



본고 학생들의 야구 경기는 좁은 대운동장에서
서 독속 방망이의 달은 야구장안을 가지고 뿔
뿔한 안전망을 바라보며 해야 된다. 학내 체육
공간 부족과 넓은 기지개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승수 기자

학내 성추행 '적신호'

퇴폐적인 놀이문화 근절 시급

최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성
문화가 지성의 산실이라 일컬어
지는 대학사회에서 기승을 부리
고 있는 가운데 음인캠퍼스 학내
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학내문제
로 부상할 조짐이 있다.

간에서 여학생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성
추행 사건은 가해자를 집중주목
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를 받아내겠다"라고 이후 대응방
안을 시사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달을 '성
폭력 문화제거의 달'로 정하고
학내에서 숙종하고 있는 그릇된
성문화풍조를 대대적인 캠페인
으로 근절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내기·외대기간
의 친목도모라는 취지로 진행되
는 연합모임에서도 음란가요·
음란패설 및 성추행 사건이 버섯
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총여
학생회는 지난 26일(월) 확대운영
위원회에서 연합모임을 건전하

게 치르기 위한 대안으로 △셋플
이 자리에서 음란가요 및 음란패
설 놀이문화를 없애자 △새학기
여성상을 유도시키는 '미스신발
대회'같은 행사를 대안적인 놀이
로 전환하자 △숙소에서 취침시
일이어나는 성추행·성폭력을 미연
에 방지하자라는 제기안건을 각
과외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117명 통학버스안에서 성
추행 사건과 관련 오는 2월(화)
에는 관련자 전원이 참석하거든
데 이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관
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학내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등의 개선, 장기 토
클업수대행, 학생수합제하 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학부위 위원장 이용원
(법·법학4군)은 "학생복지위원
회와 여학생들의 권리를
회향고자 만들어준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서 외대 7천 3백여명의
교육환경과 학생복지에 관한 생활
적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활동
하는 기구이다.



송근우 (4)

성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매점에는 학
생회관 식당·매점·문구점, 교양
관 매점 이외에도 인문사회대 카페
테리아·매점과 승차장의 스레코너
이다.

이때부터 수익금은 외대인의 복
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재투자되거나 집합사

관심과 참여는 생활이 공동체
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영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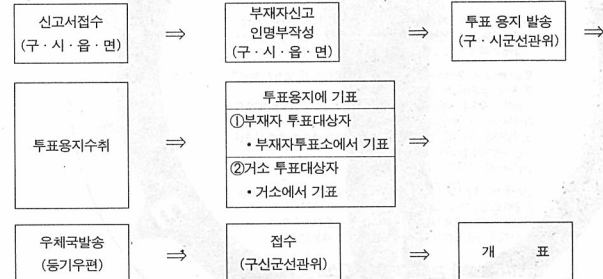
4 · 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바꿀순 없어도 내 한표로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귀중한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요령은

3월 24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마친뒤



4월 11일, 선거에 꼭 참여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버리는 지혜, 다시 쓰는 자원

모든 외대인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95년 1월부터 전면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각 건물실내에 73개조 주
요 실의 장소에 25개조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
결과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한 주간 배출 쓰레기의 약 60%가량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종이 1톤의 재활용으로 1500 / 의 석유를 절약하고, 30년생 나무 20그루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제 외대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과 및 행정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신문지, 프린트 용지, 전산용지, 책지류 및 종이류 등은 빈박스에 가지런히 묶어
서 매주 목요일 각 건물 현관에 있는 분리수거함 앞에 모아두고, 소각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
(부탄가스통, 건전지, 1회용 라이터 등)은 병 및 캔류 수거함에 분리하여 넣습니다.

기본적인 질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외대인이 됩시다.

1996년 3월 4일

용 인 캠퍼스 총 무 처

정보운동의 대중화 선언

사회정보운동, 생활도서관과 PC통신 이용해 대중적으로

본보에서는 3회에 걸쳐 정보의 대의와 생활도서관 추진과정과 고대와 흥대의 생활도서관, 서울생활도서관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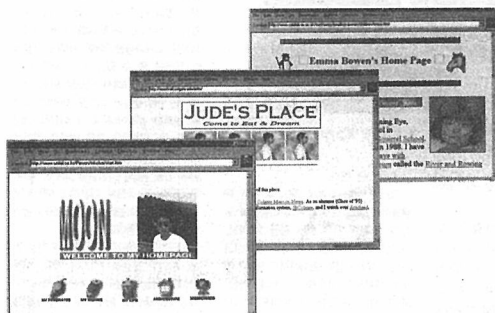
생활도서관은 현재 정보화시대에 있어 민중을 위한 정보만능기의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그러한 정보운동의 구체적인 소개를 해보면서 정보운동의 개념과 현재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편집자

우리는 정보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PC통신이 일반화 되었고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보를 먼저 접유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는 모든 사람에게의 정보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를 정보를 배려하기 위해 안전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점유는 권력이나 돈에 비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즉 정보운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나타나는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본보에서 알아 본 생활도서관도 그 일환이다.



우리는 지금 고도화된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사회현상 여파인지 정보운동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여 우리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생활도서관의 운영원칙은 책을 대출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등한 유료 책대여점과는 다르다. 책을 대출하면서 혹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을 책꽂이에 꽂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이다. 생활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자

신이 읽는 것에 대해 한마디부터 시작하여 깊은 대화까지 각각의 소감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진보적 생각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은 저수지해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 저수지의 물이 눈에 물을 대가

나 공정을 가동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 진보적 사상을 집합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 그러한 사상을 널리 퍼뜨리게 되는 물이 되는 것이다.' 정보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생활도서관의 김규환 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책이 유행의 사상을 통한 정보라면 컴퓨터 통신망은 이용한 정보수집은 무한의 도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C통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침전 예들컨대 올림피아드 축구 예선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이전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축구선수들과 대화하는 것이 방송되었다.

그 대화에서 대통령은 패배의 리듬과 코너를 분간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를 연발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시청자들은 PC통신에 4-11층을 의식해 손수

해야 할 경기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질타하는 글 등을 써 올렸다.

이제 PC통신은 여론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또 여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살펴봐야 할 것이 되었다. 이번 층에서 새로운 등장한 통신 선거 운동이 그 증거이다.

그러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민중사 회운동도 PC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생활도서관협의회(주)에서 추진하는 민중정보방을 비롯하여 참세상 BBS, 인권운동사랑방 BBS, 나무위키에 최근 개설된 한민련 BBS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운동의 내용들을 보다 대중적으로 끌어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소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나 특별한 신성화여야만 알 수 있었던 소식들이 간단한 대화방에 들어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또한 PC통신이 여론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러한 운동에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저수지에 담겨져 있거나 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서서 물을 옮기는 것이 정보운동의 핵심이 된다.

허운숙 기자

학술단신

외국문학연구소, 제3회 학술 발표회 개최

인도·일본 문학 발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외국문학연구소(소장 박철호 교수)에서는 제3회 학술발표회를 오는 4월 4일(목) 오후 4시에 개최한다. 장소는 시청각 건물 제413호(303호)이다. 이 발표회에서는 김우조(본고 인도어과) 교수와 최재철(본고 일본어과)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된다. 김우조 교수는 인도문학의 세계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최재철 교수는 일본문학으로 일본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다. 문의처: 외국문학연구소 02-961-4718

서대·사대, 총선 강연회 열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서양대·사대 대학에 주최로 오는 1일, 2일(월·화) 이틀동안 오후 5시 대학원 210호에서 총선 강연회가 개최된다.

오늘은 과학철학(한국노동연구회 정태연 교수 연구원) 제4·11층을 통해 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4·11층의 의의와 특징, 노동자 정치세력화, 학생운동의 과제 등을 다룬다.

2일(화)에는 조동호(철학 현대종합연구소 노동자) 제4·11층과 남한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총선 강연회를 준비한 정인경(서양·영어) 4학년은 '이번 총선은 노동자 민중후보 몇몇이 당선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이 부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강연회의 의의를 밝혔다.

대학원 수료 정기 학술강좌

다채로운 학습기회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96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 정기학술강좌를 오는 3월(수)부터 6월 12일(수)까지 실시한다. 장소는 대학원 건물 210호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데 이번 정기학술강좌를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강좌를 준비한 대학원 총학생회의 총학생(일본어과 3학년)은 이번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1시간 수업후 30분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학부 생활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전문적이지 않다고 한다.

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3일: 한국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 김윤식 교수(서울대)
- 4월 10일: 한국영화사와 새로운 토끼들 김소영 교수(한국종합예술교육원)
- 4월 16일: 인지과학과 언어연구 이정민 교수(서울대)
- 5월 8일: 포스트 모더니즘과 한국적 수용 김승욱 교수(서강대)
- 5월 22일: 비교문학 연구 방법론-민중의 연구(고려대)
- 6월 5일: 정미란 무엇인가? 송봉호 교수(서울대)
- 6월 12일: 산업사회의 민족-이성집 교수(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의처: 대학원 총학생회 961-4446

이 책

지구의 위기는

자연이 아닌 사회의 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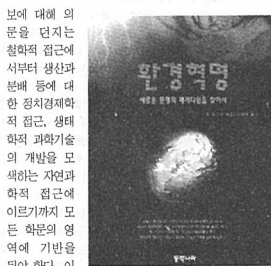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핵전쟁에 의한 오염, 도시의 과밀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은 생물학적인 문제도, 인간의 개별적인 선택의 결과도 아니다.

1400년대 후반에 유럽의 대항해시대로 시작된 거대한 역사적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출범하게 함과 동시에 식민지화와 피식민지 국가, 개발국가와 지체발달국가로 세계를 나누게 했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피식민지의 인종과 정치 체제를 혼란시켜 현재 인구폭발을 겪고 있으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에 관련된 생산양식의 변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1인당 소득이 175년 당시 1:1에서 1980년대는 7:1로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제 3세계의 불균형적인 도시 집중을 심화시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보다 훨씬 오염이 심해졌다.

이렇게 이 책은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다뤘다.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대의 경제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면서, 환경문제를 진보적인 경제학에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연구는 인간경제, 인류역사의 진



환경혁명-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저자: 김주연)

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철학적 접근에서부터 생산과 분배 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생태와 사회과학의 접근, 생태와 사회과학의 접근을 모색하는 자연과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을 기술하고 있어서 기존의 피상적인 해결방안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우리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 기자

경실련, '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강의	날짜	시간	강사	내용
제1회	4.3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회	4.10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회	4.17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4회	4.24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5회	5.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6회	5.8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7회	5.15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8회	5.22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9회	5.29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0회	6.5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1회	6.12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2회	6.19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3회	6.26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4회	7.3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5회	7.10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6회	7.17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7회	7.24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8회	7.3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19회	8.7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0회	8.14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1회	8.2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2회	8.28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3회	9.4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4회	9.1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5회	9.18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6회	9.25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7회	10.2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8회	10.9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29회	10.16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0회	10.23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1회	10.30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2회	11.6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3회	11.13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4회	11.20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5회	11.27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6회	12.4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7회	12.1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8회	12.18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39회	12.25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제40회	1.1	18:30	장관(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위원회는 오는 3월(수)부터 '민족화해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중로당에서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평화공론, 화해협력,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관해 배우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경실련 통일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은 "민족적 통일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강의 프로그램 중 백령도 기행이 있고, 민족화해아카데미 졸업생에게는 7월말 예정인 백두산 등정 및 연변에서 개최되는 남·북·중·일 국제대마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강기간은 오는 3월(수)부터 7월 3일(수)까지로 대강당은 50명, 일일시은 10명인이다.

문의처: 경실련통일위원회 (764-1233)

MR. IKE & HIS KARMA(이익훈과의 만남-인연)

5월 1일부터 ARS(음성정보서비스)로도 '이익훈TOEIC'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KBS

십수년간 TOEIC과 TOEFL, AFKN을 강의하고 있는 IKE(이익훈)가 그동안의 know-how를 제대로 만든 TOEIC. 문제의 핵심은 물론 심필할 확률이 높은 취약점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만들어 TOEIC의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이익훈 TOEIC

TOEIC은 무조건 고득점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재는 좋은 성적을 얻게 합니다. 제대로 만든 (이익훈 TOEIC)으로 고득점을 받으십시오.

누가 만들었기에.....

ETS(미국교육평가기구)나 일본의 책을 약간 응용한 것도 아니고, 국내의 유명한 교수의 이름을 빌린 것도 아닌, 오직 그의 순수한 지적입니다. 영어교육에 관한 한은 결코 남에게 일을 시키는 법이 없는 그의 13년간 토익-토플-AFKN강의 강의의 경험과 know-how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는 집중-녹음-해설 강의는 물론 토익 사진은 미국에서 직접 찍어 놓고, 그것도 미흡해 사카고의 이익훈이었던 분원(分館)에서 보내 온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초보자는 물론 도전에서 실패한 경험 있는 수험생까지도 염두에 두어 만든 교재인 것입니다.

내용이 왜 독보적인가?

- 이익훈의 순수한 지적입니다.
- 모의고사 OMR카드 분석
- 한국인의 취약점인 철저한 발음교정
- 80여 개의 '미국의 어구' 에피소드
- 초보자를 위한 어구 해설
- 고득점 요령 및 OX퀴즈
- 고득점을 위한 보너스 Q & A
- 출제 의도 및 고득점 보너스 Answers



정가: 17,000원(부록 포함)

(02)781-8140~1

지금 전국의 서점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혹은 품질질 경우를 위한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특강 교재

전국 대학가, 기업체, 외국어학원 (단, 여러 TOEIC책과 비교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4월부터 저자 직강(4곳서 동시 LIVE 영상강의)

- 이익훈 이석훈
- 강남 본원 (02)568-3322 ●종로 본원 (02)735-3322
- 대전 본원 (042)252-3322 ●사카고 본원 0011+780-677-7783

대학생활에서 문화공간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지어 주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캠퍼스 152명, 용인캠퍼스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 되도록 여러 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내 문화공간 인지도 및 각 문화공간의 이용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도

가끔 이용(46%)
거의 없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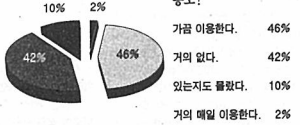
1. 학생 휴게실 이용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64%
가끔 이용한다. 24%
거의 매일 이용한다. 6%
있지도 않겠다. 5%

해서는 관심없는 대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서울, 용인이 각각 43%와 66%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들이 학내 문화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학내 문화공간은 우리

서울 · 용인



3.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도?

가끔 이용한다. 46%
거의 없다. 42%
있지도 않겠다. 10%
거의 매일 이용한다. 2%



학생 공공공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학생들이 호소한다. 하지만 주의를 돌려보면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다.

“강의의 시간은 딱히 갈 곳이 없어”

“해마다 똑같은 답변. 미묘한 갈 곳이 없다”

“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지낼 수만은 없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내 여러 공간 중 비디오 라이브러리와 학습공간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이용실태와 그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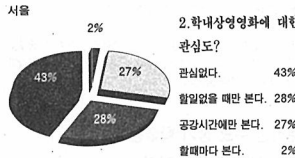
서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서울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여명, 용인의 16명 가량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예다 이용하고 또 꽤 많은 학생들이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용 학생 수에 비해 좌석수는 서울이 20%, 용인이 37%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턱없이 많이 모자란 좌석수로 인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인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학생들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2월 29일 현재 서울 캠퍼스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6,067권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부터

현재까지 년말 동안 비디오 테이프는 총 388개가 증가했고 결국 일주일당 약 2개 정도의 새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시기에 맞게 비디오 테이프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학생들의 관심을 갖는 영화 프로그램의 공급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 캠퍼스 최경은 교육과정팀 “아직 공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 테이프보다는 아학상용 비디오 테이프의 비중을 늘려갈 생각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또 최경은은 좁은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범대 건물 6층의 시설물을 교수연구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그는 “공공 공간을 인정하고 기존의 시설을 얼마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비디오 테이프 대여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아학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서관처럼 공부하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퇴짜를 맞아가게 되면 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이용학생 수에 맞게 공간을 현실적으로 배치하고 교양하는 학교공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할 때이다.

윤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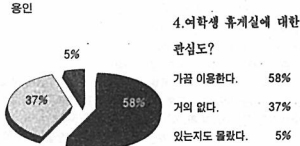


2. 학생 휴게실에 대한 관심도?

관심있다. 43%
알았을 때만 본다. 28%
공공공간에만 본다. 27%
알았을 때만 본다. 2%

리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하나 하나 만들어져 갔다. 이를 의문하고 사구만 먼 곳(화외)에서 문화공간을 찾아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본교의 문화공간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학내 문화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김남규 기자



4. 학생 휴게실에 대한 관심도?

가끔 이용한다. 58%
거의 없다. 37%
있지도 않겠다. 5%
거의 매일 이용한다. 0%

문화에서는 양면 모두 가끔, 혹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학생휴게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용인은 가끔 이용한다는 대안이 58%, 서울은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62%나 돼 서울은 그 활용도가 용인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떨어짐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학내 학생 생활의 편의성을 묻는 질문에 대

양심의 조약돌

한대인의 생활

과 정서는 사학하고

관계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

는 말이다. 그렇기

에 인간적인 존중

한 점이 담겨야 하

거나 소신을 견줄

때 그 반가움과 호

뜻함은 더욱 크게

터진다. 사회가

배달하고 있다고

이 역시 대학생활의 양면이고 양심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될 때의 그 고통은 배가 된다. 우리 외대에 이런 기현을 맞을 수는 있는 일이었다. 얼마전 서울캠퍼스 제2대 여학생위원의 (여)에서 두번째 과자를 무인판매했다. 이번 무인판매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이점이 전담기 위해 시작되었다. 젊은 기간동안 이루어졌지만 9원이라는 기

금이 마련되었다. 수입금이 판매 치는

요율 우리 밑으로 파자를 학생들에게

팔아 팔을 잃고 있다는 외대인의 공감

과 있음을 얻은 것이다. 이 판매금들은

어린이집에 할 전달되었다고 한다.

매월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무인판

매 결과 한 사흘도 돈을 벌지 않고 그냥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여

거는 무인판매를 시작할 때 우리 외대생

을 믿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팔았을 결과

가 나을거라고 100% 확신한 일이었다고

한다. 파자가 손실을 기다리며 돌아오고

돈을 받을 사람이 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별 개입이 뻔이나 파자를 들

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예보면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다.

그럼에도 소중한 우리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것은 외대인의 소박한

양심과 도덕이 모여 깨끗하고 건강한

학내, 외대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담하고 정의를 지킬 때 우리 학생

들이 정의를 위해 대학생활의 양면을

변화할 수 있는 조약돌인 것이다.

인재 기자

우리 고을이 통창기

강남구 자곡동(4)

-일제 때 자곡동과 자곡동에서 한글

자곡이 붙었다.

외대인들이 가장 관심있는 땅은

어디일까. 바로 자곡동이다. 그러면

자곡동이라는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

가.

강남구 자곡동은 길근구의 세곡동

과 마찬가지로 일제 때 두 마을을 합

하여 같은 행정구역에 만들면서 두

마을에서 한글자씩 취하여 새로 만든

지명이다.

자곡동은 광운대 대학원의 자곡동.

자곡동의 두 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1914년 4월 1일 지방행정구역제를 폐

하면서 두 마을에서 앞, 뒤를 한글자

씩 따서 지금의 자곡동이라는 이름이

가졌다.

우리말 기자

음식문화(4) — 멕시코

멕시코의 식관습과 문화

도,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옥수수 문화’라고 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때문이다.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마야문화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대신화집인 ‘포퓸(Popul Vuh)’에는 인간창조의 대에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최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옥수수 반죽 알갱이를 인간의 사지가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

이 옥수수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토르티야(tortilla)’이다. 토르티야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밀린채로 만들어 ‘코말(cornal)’이라는 납작한 쟁반 모양의 도자기에 구운 것이다. 이 후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과 내장을 요리하여 찰떡처럼 싸서 먹는 게 이것이다.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적 음식인 ‘파코(paco)’이다.

전통주로는 마가미(magami)를 비롯하여 만든 우리 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한 ‘폴레(polque)’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폴레는 맥주가 어울려 따라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지푸레(참나무), 고추, 사탕수수, 에네멜, 마가미, 마미, 제과 등의 원산지로 바로 식재료이다.

멕시코 음식 문화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 문

월드컵 공동개최 통일의 지름길

정부의 적극적 의지·지원 필요



얼마전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한일전에서 승리라는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은 올해 6월달에 확정될 월드컵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면에 더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은 앞으로 한일간의 유치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현재 월드컵

유치상황은 한일만이 경쟁하던 모습에서 최근 일본이 일본위원단 등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 일본쪽 지지가 확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상태에서 북 한국이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제기했다.

이문재와 관련 정부는 초기에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듯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측의 제의가 외신시달되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의 태도와는 다르게 민주주의인류공동체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민간통일운동의 한 일환으로 월드컵 공동개최의 정당성과 의의를 강조하며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성사 범국민운동본부(준)에서 일하는 전국연합 최후준비 70년대 평화를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화합의 장이 민간스포츠 교류인이다"라며 "남과 북이 함께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면 냉전과 적대의 벽을 깨고 민족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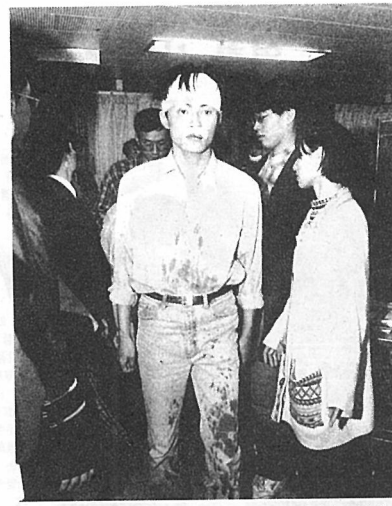
월드컵 공동개최는 민족화해와 평화,

통일분위기 조성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전일과도 알려진 FIFA의 아예판제 회장까지도 남북이 공동개최하면 손을 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통일축구교류를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91년에는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7천만 동포를 감격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 같은 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도 단일팀이 출전해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짜릿한 감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 등의 민간문화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공동개최 사업은 앞으로 민간통일운동이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월드컵 개최를 바라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간 통일운동이나 교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병수 기자



지난 29일 대전 지역 공과와 교육행정 확보를 위한 서훈연습기 투쟁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숨진 고(故) 노수석(연대, 법조)의 시신이 안치된 국립의료원에 경찰복으로 뒤덮인 시신탈취를 막기 위해 응급실에 있던 한 학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노군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

고영진 기자



수혜자와 공급자

"교육재정 확보하여 민족대학 설립하자"
"부당한 등록금 인상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27일(수) 성남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56공 전세정산'을 위한 한층층(층층기)가 경기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 주최로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분들도 "맞아, 학생들이 좋은 일 하는 거야. 나라도 내 자식 등록금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교육재정, 그게 뭐야? 그게 5% 확보되면 등록금이 싸지고 교육환경이 좋아진다고? 아, 그럴 당연히 확보해야지"라며 지지를 보냈다.

얼마전에 각 신문과 방송에 60년대와 90년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들어가는 등록금을 당시 쌀 값과 소금으로 환산한 내용이 보도됐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60년대와 비교되는 90년대의 등록금 비용

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교육비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 GNP 대비 5% 이상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시끄럽다.

지난 22일(금)에는 서울시립대학 학우가 등록금을 미납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자살한 사건까지 일어난다.

매년 두자리 수 이상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교육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그 짐을 계속적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은 받는 것은 학생이나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받는 만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 다.

배우는 학생들이 지금은 교육의 수혜자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배운 지식을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백병수 기자

대학엔 만안, 그 본질은 무엇인가

교육부와 학교의 학보 길들이기

지난해부터 원고 사전검열문제로 기자선발권 문제로 남한쪽 주관교수(행정학과)와 함께해 대립해 오던 세종대 학보는 올해 개간호의 편집과정에서 지난 해의 문제들이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반발해 개간호 발행 이후인 지난 달 29일(화)부터 원고 사전검열 철회와 주관교수 퇴진을 요구하며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나흘동안 2천여 명의 학생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29일(금) 오후 학내 언론사 모든 기자들에게 학생지 명외의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주관교수를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치 않으면 처벌받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기자들도 쉽게 풀려서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편집자료를 둘러싼 학생기자들과 대학당국의 긴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언론탐압의 근원은 교육부

몇해 전부터 지금까지 대학당국이 주관교수의 편집자료를 철회로 인해 마찰을 빚어온 대학신문사는 세종대, 부산대, 건국대, 추계예술대학,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삼명대 등이 있다. 해 지금 대학신문의 편집자료를 철회가 대두되고 있는가.

대학신문의 편집자료를 철회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장학금 수혜, 수습기자 선발, 현직자에게 무리하게 성

적조항 적용 등 유명무실한 사직을 임의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광고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사를 검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국외대학과 외대학보의 경우 91년도 성직자임을 이유로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 8명을 대량 퇴직시켰으며 그로 인해 외대학보의 발행이 중지되었다.

건국대의 건대신문사의 경우 올해 마찬가지로 편집장을 비롯한 2명의 학생기자가 기자직을 면직당했으며 지금까지 해지 상태이다. 외대학보가 94년 대학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재학생지의 이유는 성적이 아니다. 대학당국과 재단이 학생기자의 성적을 발표로 이번 기회를 통해 외대학보를 홍보시키려는 것을 간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의 대학언론에 관련된 지원과 무관하지 않는 것에서 증명된다."

서울시립대의 시립대신문사의 결 또는 여러차례에 걸쳐 있다. 올해초 대학당국의 연막 언론시종폐합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당국은 "시립대신문과 영자지를 통합한다. 대학뉴스를 1면에 한 두 번 정도 영문판으로 발행한다. 서울시립대 신문이 지나친 '화성화' 및 일방적 의견 부각 경향 등 학교대표신문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대학당국과 대외통로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학언론통합협의의 내용과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시립대 언론협의회는 "대학신문이 대학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탐압의 흐름은 각 대학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교육부의 방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89년 '5.6조치'(대학신문 이원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94년도 지침을 통해 '대학신문(학보)의 편집, 광고운영에 대한 대학의 통제강화, 기사에 대한 주관교수의 검열 강화 및 원고 철회에 대한 심원확인 절차'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의 대학신문 장악이 문제인가?

세종대 대학신문은 지난해 기자들과 전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자 모집을 공고했다. 게다가 주관교수는 기사선발 면에서 학생편집장의 참여조차 배제시켜 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2월 29일(목) 전국주관교수협의회(전주협, 회장 김경수)에 주관교수와 교감하여 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지급까지의 무리함한 선발방식으로

인해 기자들의 좌절과 질적 저하, 그에따른 대학신문의 저질화가 계속됐으며 대학신문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전지로 변질한데 따라 완전히 독자성을 상실했다. (중략) -대학신문들은 운동권의 논리와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구실을 해왔으며, 심지어 북한과의 주파나에 관한 개입과 조판한 괴담의식에 담겨 비판, 매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교육부와 전주협은 대학신문이 일부 과격한 운동권의 선전선동지가 되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당국의 원고검열 강화 △학생·학교신문 이원화 추진 △학생기자 차별과 규제 강화 등의 지침을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신문은 학생들의 등록금, 광고비, 학교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등록금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신문은 교수·직원·동문들까지 포함한 대학교공채인원이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학생일 수 밖에 없다.

학생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수, 직원, 동문들까지 끌어 안고 주관교수와 교감하여 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한승오 기자)

세종대 마찰지속

현재 계속되고 있는 세종대학보사의 편집자료를 투쟁은 지난 94년도부터 시작됐다.

94년에 주관교수인 임영민(행정학과)교수는 학생기자들에게 원고 사전검열과 수습기자 선발권을 요구했다. '대학의 일꾼이'라 할 만한 대학신문이 몇몇 학생들에 의해 좌절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뿐이었다.

이로 인해 94년에는 1학기에 세번, 2학기에 한번 신문발행이 95년도에 2학기에 단 한번 발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또한 주관교수는 "수습기자는 주관교수 단독으로 선발해야 한다"라며 학생기자들에게 수습기자 단독 선발권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기자선발권 문제와 관련하여도 첨예하게 학생기자와 주관교수가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9일(화) 개간호가 발행됐다.

개간호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를 이 주관교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위질 당하고 정상적인 발행일보다 3주나 늦게 나온 신문이었다.

기사는 대부분 수차례 검열을 통해 수정과 내용 삭제가 이루어진다.

대학신문은 어느 개인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는 정의를 반영해 밝히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늘 푸른 지성-③



유행 타지 않는 유행

통기타에서 워크맨, 컴퓨터에서 핸드폰까지—한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모습은 달라도 시대의 주역은 하나—젊음. 그 합창 발길 곁에 언제나 렌드로바가 있습니다. 약동하는 젊음과 함께 나갈 렌드로바.

유행타지 않는 유행. 렌드로바가 있는 시대는 언제나 젊습니다.

렌드로바

민심기행 김영삼정부 3년을 평가한다 - 물가

“시장에 올 때마다 허탈합니다”

쫓고 있는 소득 날아가는 물가

최근 김영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특별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경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도 하는 등 경제정책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럼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 부산의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 27일(수), 28일(목) 부산과 김해지역의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경제에 대해 알아봤다.

권갑자

먼저 시장으로 향했다. 물가상승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주부와 영세상인이라는 확신에 든다. 부산시내에 있는 부산시장에 들어 서자 마를 팔고 있는 주부 A 씨가 보였다.

“시장이 올 때마다 허탈합니다. 채소나 과일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야채마늘 개리 모이든 채비나 생활필수품같은 고만 잡들 물건은 사들 사람한테 쓰면 쫓겨나기”라며 장영자(42) 씨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물건이 싸다고 소문난 남창시장. 이곳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영준(53)씨도 장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탄식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장사도 잘 안됩니다. 물건은 사는 사람도 패는 사람도 살기가 힘들면 물건팔아서 남는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느끼는 물가상승도 만만치 않다. “군대 가기전인 93년에는 만원짜리 한장이면



해가 바늘수록 물가는 전장부지로 솟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비하고 밭하고 술도 한잔 했는데 이제 채비하고 밥값하고 나면 술은 입두도 못낸다”며 “채비만 생각해도 93년에 비해, 버스비가 280원에서 400원으로, 지하철비도 270원에서 4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부산대 학생 김정훈(21)은 말한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까? 정부의 물가상승률 발표를 보면 '95년에는 물가가

4.5%가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조사한 ‘시장바구니 물가’에 따르면 95년 2월 현재 21.2%의 성장률을 보였다. 정부에서 조사하는 물가상승률보다 시민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의 16~17%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생활필수품이나 공공요금같은 간접세가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간접세는 잘사는 사람

이고 못사는 사람이 고 똑같이 내야하기에 경제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근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두 전직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탄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축적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신을 안겨줬는지는 만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은 거기에 끝이 없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축적 뒤에 따라나오는 예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문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웬지 그럴 것 같다.”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민심이고 보면 오는 총선에서 간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문제는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시내 김포동에서 만난 김정훈 씨의 논평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바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물가를 안정시킨다 하면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총선정국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을 두 번 삼말하는 일이다. 정부는 표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정리: 이미경 기자

이번 총선에 바란다

대학생의 사망과 총선



박정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교육선전부장)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 대학생들을 죽였다. 경찰은 이 치욕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반성하지는커녕 ‘부검을 해야한다’느니, ‘사인규명을 해야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마구 내걸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 참한 김영삼식 전공범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우리들은 비참한 격오와 결단할 해야 한다. 총선에서 한표를 잘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야만적인 현실의 거울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야 한다. 나는 과연 이 두꺼비 대학생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시 나의 나태와 불철저함이 이번 일을 불러왔지는 않았는가?

총선에서 우리는 이 순진한 대학생들

죽인 자들을 표로 일단 심판해야 한다. 언어가 목을 맨 중소기업사장과 부도들 낸 2만여개의 중소기업 도산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천만 종교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성지인 조계종과 명종당당을 군화발로 짓밟힌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표로 심판하는 것으로 도저히 마무리 될 수 없고, 분노 풀리지 않는 이 갑갑한 세상을 공명기를 내건라야 바뀔야 한다.

다시금 부연하건 우리는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의 1차 목표가 정실적 목표를 실현한 ‘표’로 2차 주반이 할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2차 목표이며 전략적 목표는 더 이상 경쟁권이 문민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독재정권을 낙인찍고 ‘김정권 퇴진투쟁’에 총결집하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어렵다고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살인행위에 면죄부를 주게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민이라는 기대를 걸고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가. 또 참을 것인가. 올들어 들어 서 벌써 경미해졌다. 이제 그만 참자! 고민의 여백, 아버지의 심정을, 자신을 옆에 두고 살신한 듯 넋이 빠져있는 두 누이들을 가슴에 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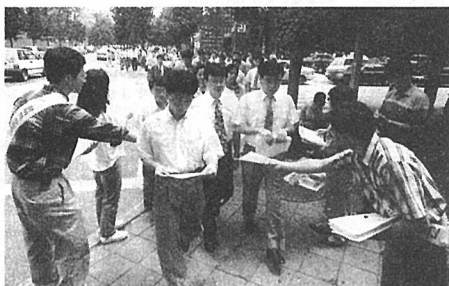
우리를 결해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을 쟁취하며 북을 두드리라! 고민의 여백과

모습을 빚어서 지킬라! 페퍼코, 백달만 풀리지라! 종로로 나가라!

재출신 후보 함은경씨 유세장을 찾아서

“함 사세요! 개혁이 담긴 함, 통일이 담긴 함 사세요!”



지난 28일(목) 봉천동에 위치한 현대시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함사세요! 개혁이 담긴 함, 통일이 담긴 함사세요!” 이번 15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공약(2)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함은경씨의 유세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다. 옆에 있던 한 주민은 “아니 할아버지는가?”

라며 관심을 보였다. 이런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많이 들고 있는 ‘저음처럼’, ‘바위처럼’ 등의 노래와 율동도 거들자 일반유세에서 볼 수 없는 것만만 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또 특별한 점은 선거유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생들로 이뤄진 자원봉사자들

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이제 막 대학을 들어온 새내기도 있고 군대를 갔다온 고학년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사람인 박원지(고려대 법학과 1)군은 “저음부터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함은경의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선배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그보다 기존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자원봉사를 지원한 동기를 밝혔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를 대의적으로는 한성공에 대한 심판의 정으로 대내적으로는 기존 정치세력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세력과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서는 이번 선거에 독자적으로 4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그중 한사람인 함은경씨는 지난 1985년 미문화원 참가농성 시건의 장본인으로 흔히들 말하는 모택정 시대의 대표적 주자이다. 이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요즘 하루가 48시간이라고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닌다 한다. 물론 그가 바쁜 만큼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거운동본부도 정신이 없다. 사무실 한쪽 책상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학회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함은경 후보측은 1인당 백통씩 현령의 사람들이 작성한 10만통의 자원서신 보내기를 계획하여 사무실 한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번에 함은경후보측 지역을 위주로 한 공약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내용을 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선거본부 대변인인 홍진표씨는 지금은 지자체가 정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문제만은 지자체의 대표성이 해야한다고 말을 하며 “물론 지역문제에 대해 전혀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들이 나온 것은 잘못된 풍토입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도 시급하지만 그것에 너무 급급해 하면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씨는 선거에 당선된 후부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활동을 만들 것이며 전 반적인 행정제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경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국민정당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신문 공동기자단

정리: 임태진 기자

오 대 한 평



KBS와 MBC, SBS를
보나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연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에 큰 도움은
MBC 감사장이라
여러 관계자에게
공로를 돌리고
하는 군요...

진정한 일등(?)

송근우

★ ★ ★ 세기로 미래로 -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에서 금융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21세기를 향한 힘찬질주

국가기간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온 동양그룹이 식품, 금융, 유통서비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해 온 동양그룹 - 이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와 앞선 세계화의 실현을 통해 21세기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 동양그룹

제 조

동양시멘트 동양제철
동양산업기계 동양토발

식 품

동양제과 오리온푸드코어

공 익

서남재단

금 융

동양증권
동양투자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저당
동양알부금중
동양정리투자
동양투자자문
동양신설
동양파이낸스

무 역 · 유 통 · 건 설

동양글로벌
동양에코
동양마트
동양시멘트(주)건설

기자재확충·체육관건설 추진돼야

4766

다시 사월을 맞이하며, 외대의 고향 후배들에게

부당함에 맞선 강고한 지향 정신



북학에서 한우와 행사를 모처럼 나갔더니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다구나.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토론회, 추모행사, 선전작업을 생각하면, 함께 나눈 추억을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4.3을 너희들과 이야기해보고 위해서.

먼저 4.3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보자. 나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

하나는, 역사적으로,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펼쳐 있었던 발제주도민의 항거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성 없고 자주적이지 못했던 권력이 지닌 한국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의 학살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의 학살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선 반대를 선포했던 남로당 재주도당이 뿌린 바리가 그 원흉이기에 그리고 많은 목숨을 죽였다는, 코민테른에서 전하라고 한 통 걸려왔던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탄된 제주 백성의 굶은 단결은 그들의 지배전략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에 무차별 학살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랑스런 가곡인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감옥으로 잡히고 테러를 당하는 것을, 일제의 야망이 이제 미국의 손발이 되어 다시 그들을 잡아넣는 것을, 도민 스스로 세운 자치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칼로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결코 알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야. 그분들은 너무 당연한 요구를 내세웠지.

"단독선기 반대, 예국자 석방, 조국통일, 그러나 그러한 요구의 뜻기는 너무도 참혹한 것이었지. 수만이 죽었어. 삼만이라고도 하고, 팔만이 넘는다고도 하지. 그때 제주 인구 이십 오만쯤, 마을 전체가 한산 한시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제주엔 얼마나 많았지. 너희들은 잘 알았구나. 그 비통함을.

사실이 아닐진대, 누가 도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며 그것이 대항극의 면죄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 단선 반대를 선포했던 남로당 재주도당이 뿌린 바리가 그 원흉이기에 그리고 많은 목숨을 죽였다는, 코민테른에서 전하라고 한 통 걸려왔던

라면 아마 제주사람 단 한명도 목숨을 부지하지 힘들었으리라. 지금도 민감한 '이념'의 문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에, 4.3의 진상과 책임의 규명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의 업적도 시간의 침식에는 견디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름없이 산다 물살당 한 광범한 이들의 한평생은 더 말해 무엇할까.

그날, 48년의 어느 봄날, 불화불을 신호로 죽음을 들고 경찰서를 공격하던 어떤 이들의 하루도, 인류 역사 구석에 한숨처럼 맺힌 그 무수한 봉기와 학살의 날과 큰 다툼이 없었으리라. 하지만 매년 우리부터 그들에게 정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잊지 않도록 한다면, 언젠가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진정한 신원이 밝혀지는 날이 오겠지. 그때는 추모제는 커녕 무슨 쓸데없는 기념식만 빌먹듯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신명나게 할 수 있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를, 이곳 외대에서도, 어쩌면 초라하게, 하지만 진지하게, 추모해야 할 운명인 듯 하구나. 모두 힘 내자.

강성현
(법·법학 3)

시 '야학'

열 려 난것만 고심에는
주인 잃은 책상과
그 위로 깔고 있는 교과서가
여기 저기 눈에 띈다.

가을 학기에 일출처럼
교실을 꼭 때려
학살들이 쫓는 강강노동으로
그들의 꿈은
한없이 흐려지며
민러가는 불꽃이 되어
아득에 하나 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젠 새내끼의 아이들만이
자랑받은 외지로
이 학교에 등록해요
고단했던 날의 일과는
잠사 사라져서 집어두고
초중초등은 눈발이
하나 둘 모여
이들의 등불을 밝힙니다.

다 커가는 아이들이 풀 있다는
마흔 둘 장제 아홉마도
늦은 발걸음을 재촉해 들어와요.
이 곳에서
배움의 해를 열고자
교실에서 성교를 들듯
눈길은 천만에 고정시켜요.

교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겁진 않나.

조개 집어가는 대학생들로
여러분과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꽃피우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꿈의 현실이 되고
한 응원의 물이 되고자 왔습니다.

정말이지
교사란 이름표를 달고
교단에 선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꿈의 현실이 되고
한 응원의 물이 되도록
저의 교과서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운 지

국학 열에서
서장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분부터 소곡새는
그렇게 불었다 보다
...

노오란 내 꽃을 피려고
간만에 무서리가 자리 내리고
내게는 점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일섭
(사법·한국 3)

전국기원 기자들은 문화방송의 경쟁방송 장점을 위한 작업을 저지합니다

요즘 '땡김뉴스' 잘 보고 계십니까?

5.6공 시절보다 더한 불공정·편파방송,
이제 텔레비전을 부숩시다.

5공 시절, '땡김뉴스'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9시 시보가 울리자마자 영커들이 전두환대통령의 동정을 댄 먼저 보도하는 것을 빗대서 붙인 이름입니다. 대체 세상 어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소한 일장까지도 머뭇거리고 처리하는 방송뉴스에 국민들은 전철미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유린되던 군사독재시절이기에 별다른 것이라 자위하기도 했습니.

세월이 흘러야 '문민정부'라 자처하는 지금은 어떨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느라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입니다. 대체 세상 어찌 나라는 하루 평균 2천 정도의 대통령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이 있습니까? 흔히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보상자'가 '편파상자'가 됐습니다. 이런 '편파상자'를 '공정상자'로 바꾸기위해 문화방송이 나섰습니다. 권력에 굴종하고 아부하는 언론이 아닌 방송의 독립과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어찌 신문과 방송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한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방송이 아닌 전정으로 국민들의 눈과 입이 되어야 할 방송을 되찾기 위해 우리들의 외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진수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와
교육재정 확보.

교내에서 열린 모의 월드컵대회에서 법대 선수들이 이 두문구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

작금의 현실에서 청년이 가슴에 품고 뛰어야 할 말이 아니다.

우승이 목표가 아닌 시대의 목표를 걸고 뛰는 줄거은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었다.

한승주 기자

작은 외대 이야기 (4)

여러분! 모교가 하면 뭐가 재밌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by. 안화모임 "해결" 95-박재준

모교지의 목적은 그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교지를 통해 학생들은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모교지의 목적은 그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교지를 통해 학생들은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모교지의 목적은 그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교지를 통해 학생들은 모교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고, 그 유익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인문정약에 맞선 MBC 노동자들

문화방송 노동자 김성구사장의 쉼과 공명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2주째 접어들고 있다. 이번 문화방송 파업은 문인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송정책의 음모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파업이 공명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송통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 문화방송 노동자의 파업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왔다. 문인정부에서도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성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불공정 보도사태의 속출은 이번 파국의 씨앗을 잉태했다. 박종우 사장과 박인 일보라도, 총주조 유림선 사건 축소, 대구 지파철 가스폭발 생방송 지연 및 축소보도, 대선자금 추척보도 축소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공정보도가 계속됐다. 이는 권력에 부화하는 강사장의 시대적행위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권력지향적 특성이 빛을 발한 연적 결과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KBS의 사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적 성격이 부여된 KBS이사회가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MBC사장은 공익적 지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양대 방송사 사장은 실질적으로 공보처를 비롯한 방송유관장부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이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래적 공익기능을 마비시키고 정권의 이익대변자로 전락해 왔다. 이번 파업은 문인정부의 지칭하는 정권에서 개선될 줄 모르는 불공정방송과 편파방송을 바로잡고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MBC노동자들의 마지막 울부짖음인 것이다.

- 권력독점적 강성구의 MBC사장 연임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영삼대통령은 언론을 통한 대선자금 은폐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 현정권은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라!
- 총선시기 언론자유를 위한 정권 홍보 강령에는 정경관 각성하라!

4768